

# “최선의 독서교육은 자녀와의 대화”

##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하는 송영숙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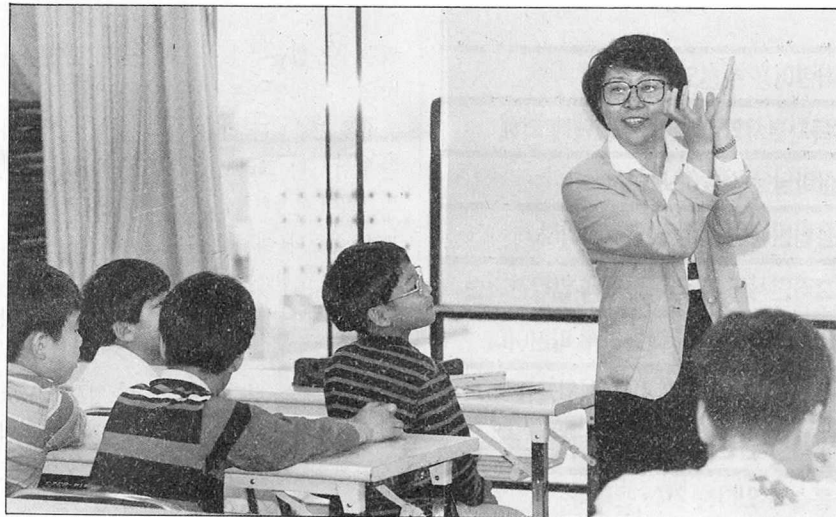
도서관학 전문가가 대학강단에서 내려와 어린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독서교실’을 열고 있다.

무역센터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어린이 독서교실을 열고 있는 송영숙씨(42)가 그 주인공. 독서교육의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그 방법을 모르는 학부모들에게 그는 반가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석사학위 논문을 도서관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에 관해서 썼었지요. 자료도 없고 실행하고 있는 곳도 거의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더욱 절실하게 느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학의 이론정보보다도 도서관이 기초적인 기능을 갖추는 일이 더 시급합니다. 평소 아동독서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 기회가 닿아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책이야기를 나누는 게 강의보다도 더 즐거워요.”

이화여대 대학원과 美아시오대학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한 뒤 한성대 등에서 강사로 활동하던 송영숙씨가 어린이 독서교육 현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수강료(3개월에 3만5천원)를 받는 독서교실이긴 하지만, 공공도서관이나 학교가 소홀히 하고 있는 일을 누군가 맡고 나서야겠다는 생각에서 과감하게 시작해보았다고.

애초에는 학부모, 특히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자녀독서지도교실로 문을 열었지만, 신청자가 한명도 없어서 결국 어린이들을 위한 교실로 바꿨다. 학년별로 차등을 두지 않고 공통의 독서목록을 부과하던 처음의 지도방식을 개선해, 지금은 국민학교 1,2,3학년 그룹과



무궁무진한 책의 세계를 어린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독서운동가 송영숙씨

4,5,6학년 그룹으로 나누어 그때그때 적당한 책을 선정해 읽히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3개월, 즉 12주 단위로 20~30여명의 학생들을 받아 지도해오고 있으며, 현재 독서교실 제3기에 입학한 30여명의 어린이들이 송영숙씨의 지도를 받고 있다.

4학년짜리 아들을 독서교실에 보내고 있는 가정주부 이세재씨는 “아이가 TV, 장난감에 신경쓰는다고 책에 흥미가 없는 것 같아 반강제적으로라도 책을 읽히려고 보냈는데 다행스럽게도 재미있어 하며 다니고 있다”고 말한다.

아이들로서는 또 하나의 과외공부로 느낄만도 한데, 수업하는 모습을 잠깐 들여다보니 마치 놀이터에라도 온듯 옆자리 친구와 할말 다하고 탄짓할 것 다하면서 아이들은 송영숙씨의 ‘반쪽이 이야기’를 흥미롭게 듣고 있었다.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킨 다음, 송영숙씨는 지난 주에 과제물로 내주었던 「제비」(1,2,3학년) 「석탄이란 무엇인가」(4,5,6학년)의 내용을 함께 이야기한 후, 학생들에게 짝막한 독후감을 그 자리에서 쓰게 한다. 원고지 쓰기도 아울러 지도한 후, 다음 주까지 읽어 올 책을 정해주고 나면 그날의 독서교실은 끝난다.

“아이들이 바른 독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학교와 도서관에서 해야 하는 일을 보완해준다는 의미에선, 사실 이 독서교실도 과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어떤 형태로라도 독서교육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한 아이들이 강요를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책과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도 솔직히 어느 정도의 강제성

은 필요하지요. 책을 읽어와야만 친구들과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 스스로 느끼게끔 만드는 것이 이 독서교실이 부여하는 최대의 강제성입니다.”

1년 정도 꾸준히 독서교실에서 책을 읽고나면 어떤 어린이라도 독서습관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게 될 것으로 송영숙씨는 기대했다.

한눈에 보아도 장난기가 다분한 4학년 남학생 두명은 “선생님은 재미없는 책만 읽게 한다”고 불만이 대단했는데, 송영숙씨는 누구나 읽고 싶어하는 책을 골라 읽히고 있다고 도서선정기준을 말했다. 전체 선정도서 중에서 동화책이 50%, 과학·역사·위인전 등이 50%를 차지하는데, 아이들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선 가끔씩 명랑동화도 소개한다고.

“사실 독서교육이란 별다른 것이 없어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책읽어라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무슨 책을 읽나 늘 관심을 기울여주고,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면 그것이 가장 좋은 독서교육이지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책방에 나가서 함께 책을 고른다면 더욱 좋겠지요. 다만 처음부터 수준높은 책을 권할 것이 아니라, 쉽고 재미있는 책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여년전 정독도서관 사서로 잠시 근무하며 도서관 일선의 어려움을 몸으로 체험하기도 했던 송영숙씨는,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조그마한 사설 어린이도서관을 열어 유아에서부터 중학생을 위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계획을 갖고 있다.

—오애리 기자

국내 최초의 전문편집인력양성!

# 편집디자인



**출판**  
○단행본 ○전집류 ○잡지  
○교양도서 ○참고서 ○사전류  
○교과서

**신문**  
○일간신문 ○주간신문 ○월간신문

**잡지**  
○교양지 ○전문지 ○종합잡지  
○정기간행물 ○사보

1기생 96% 취업확정  
2기생 취업요청 쇄도

●취업보도실 : 671-8317

미올스튜디오

☎ 672-1841, 672-1842

전철2호선 영등포구청역 문래동 방향 150m